

# 근·현대 150년 전남 지역사회 변천사

## 혼돈의 지역사회 상·하

박찬승 지음

“...남쪽으로는 준비한 일인 (日人)의 기와집이요, 중앙으로는 초가에 부자들의 옛 기와집이 섞여 있고, 동북으로는 수림(樹林) 중에 서양인의 집과 남녀 학교와 예배당이 솟아 있는 외에 몇 개의 집을 내놓고는 땅에 붙은 초가집이다. 다시 건너편 유달산 밑을 보자. 집은 돌 틈에 구멍만 뚫어 놓은 돼지마갈은 초막들이 산을 덮어 완전한 반민굴이다.”

목포 출신 소설가 박화성(1903-1988)은 등단작인 '추석전야'(1925년)에서 당시 일본인 거주지인 남촌과 조선인 거주지인 북촌의 모습을 '일인 기와집'과 '돼지마갈은 초막'으로 대비시킨다. 일본 식민지배기인 1920년대 목포 북촌은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식수, 의료 등 여러 면에서 의도적인 차별을 받았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신간 '혼돈의 지역사회'에서 식민기 목포를 비롯해 인천, 군산 등 과거 개항장 도시들이 전통도시와 근대도시가 공존하는 '이중도시'(Dual City)로 건설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식민지 권력은 외래 식민 집단의 주거지를 토착민들의 열악한 주거공간과 분리시켜,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주거지로 만들어 식민권력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고, '문명'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자 했다"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이중도시는 일제 식민권력의 의도적인 정치적 기획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신간에서 식민-해방-남북분단-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남지역 목포와 나주, 영광, 강진, 능주의 사



목포시 근대 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열리는 '목포명물 옥단이! 잔치집으로 마실다!' 프로그램.

회사를 살핀다. 1990년대부터 30여년에 걸쳐 문헌자료와 신문자료, 현지조사, 구술채록 등을 통해 5곳 지역사회의 변동을 두 권의 저서에 꼼꼼하게 정리·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 150년 세월동안 지역사회가 어떠한 변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지역유력자(지도자)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에 중점을 둔다.

저자는 '도론'(導論)에서 조선시대 전통적인 지역사회가 오늘날의 지역사회 모습으로 바뀌기까지 ▲지역사회의 근대적, 식민지적 재편과정의 시기(갑오개혁-식민지시대 신분제가 무너지고 지방행정 제도가 크게 바뀜) ▲해방-분단-전쟁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냉전적 재편과정의 시기' ▲농지개혁-산업화-이농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의 시기' 등 3차례의 격변기가 있었다고 밝힌다. 또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식민기 새롭게

등장한 '지역 엘리트'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신교육을 받은 향리가(鄕吏家) 자제들이다. 이들 일부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한 반면 많은 이들은 일제지배에 저항하며 1930년대 각 지역에서 민족·사회운동을 이끄는 세력의 주축을 이뤘다.

저자는 크게 '식민기 지역사회와 민족·사회운동'과 '해방-분단-전쟁기 지역사회'로 나뉘는 각 지역의 역사흐름을 살핀다. 신간에 실린 5개 지역의 식민-해방-남북분단-한국전쟁기 사회사는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다. '지역 이름의 역사'에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자의 학문적인 자세는 자칫 망각해버릴 수 있는 지역사를 생생하게 살려낸다.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근·현대 전남 지역사는 역동적이지만 이면에는 지역의 갈등과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영광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 중 좌·우익 학살로 민간인 2만 5000명 이상이 희생됐다. 당시 영광 전체인구의 18%, 전남지역 희생자의 50%를 차지한다. 이러한 식민기와 한국전쟁기의 지역사는 현재의 역사와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해방-남북분단-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지역사에 오늘의 갈등을 풀 열쇠가 있다. 우리가 '혼돈의 지역사회'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양대출판부·각 권 3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자본주의 인문학 산책=이류와 건축, 유통과 화폐, 금융과 예술, 전쟁과 정치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자본주의는 어느덧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문화와 자본주의의 상호 관계에 집중하는데, 프랑스 요리의 고급화, 미국 대중문화, 기호식품과 옷, 도구의 발달과 물질문명 등 23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문명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한국경제신문·1만9800원>

▲단 한 권으로 읽는 논어·역경=동양철학과 사유의 근간이 되어 온 '논어', '역경' 두 경전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사서삼경의 대표작 논어와 삼경 역경이 합쳐져 인간의 삶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가늠케 한다. 주역과 왕부지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수년간 논어, 주역 강해본 등을 책으로 펴내며 두 동양철학을 결합한 것이다. 주역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물음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삶의 해답들이 쉽게 풀린다고 말한다. 부록으로 공자 연표도 실려 있어 방대한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통나무·2만5000원>

▲위대한 치킨의 탄생=젓소가 "닭고기 마니 머거"라는 광고문구를 외치는 캠페인으로 치킨버거 업계의 대중화를 이끈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칩밀레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 매장이 대중성과 독창성, 매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정치기



정신을 바탕으로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닫을 것, 주식시장 상장을 피할 것, 매장 운영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고수할 것 등 여러 경영철학을 집적한 저자의 성공 신화가 담겨 있다. <이콘·1만9800원>

▲강대국의 흥망성쇠=강대국들의 역사 속에서 세계 일류 강국이 되는 공통된 법칙 다섯 가지를 발견한다. 내란과 분열사를 거쳐 오면서 저마다 민족의 단결, 국가의 자주권을 성취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립과 통일을 유지해야만 국가는 역량을 집중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생각·2만5000원>

# 아이디어 인큐베이터...삽화가 60인의 스케치북 사용법

## 일러스트레이터의 스케치북

마틴 슬즈베리 지음, 황유진 옮김

독자들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면을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책에 실린 일러스트를 볼 때면 그림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이 기발한 그림의 '처음'은 무엇이었는지, 아름다운 색채는 어떻게 완성됐는지 등에 호기심이 인다.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가 '무엇'을 탄생시킨 토비야손이라고 한다면 궁금증은 더해진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스케치북'을 살면서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스케치북-세계적인 삽화가 60인



의 매우 사적인 기록'은 '그림으로 글을 쓰는' 삽화가들의 보물창고를 열어보는 기분이 드는 책이다.

일러스트레이션 교수이자 현역 작가로 활동중인 저자 마틴 슬즈베리가 쓴 책은 '피터 래빗'을 탄생시킨 비아트릭스 포터, '바비'의 장 드 브루노프, 에르제의 '팽팽'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삽화가들이 전하는 각각 각색의 '스케치북 사용법'을 소개한 화집이다.

일류 삽화가들의 변죽이기는 아이디어가 생생하게 기록된 스케치북 책을 읽다보면, 그림작가가 조선경의 말처럼 "비밀의 문으로 은폐되었던 작가의 내면을 만남으로써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행운을 얻게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스케치북을 통해, 공개된 작업 뒤에 숨겨진 작가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은 흥미롭다.

스케치북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긴 일기장이고, 열정적인 창작활동이 펼쳐지는 '중요 작업실'이다.

흥미로운 시각적 아이디어의 저장소인 스케치북은 그림, 메모 등을 자유롭게 끼적이는 공간, 프로젝트를 위한 체계적 연구와 정보를 수집하는 본거지, 새롭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아이디어의 기록 보관함, 다양한 실

험과 실패가 자유로이 허용되는 장소다.

"모든 아이디어는 작게 태어나고, 두발로 제대로 서기 전에 가능성을 짓밟아버릴 위험성이 언제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스케치북은 연약한 아기를 살려주는 인큐베이터와 같아요."(파비안 네그린)

"주로 제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 조각보를 기워 패치 워크를 만드는 것처럼 매일 관찰한 것들을 스케치북에 한 뼘 한 뼘 바느질합니다."(차이 가오)

"스케치북은 작업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리는 즐거움 그 자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마누엘 마르스),

작가들의 스케치북 예찬론이다. 스케치북은 "마구 뛰오르는 이야기의 씨앗, 영감, 목표를 담은 공간"(사라 룬드베리)이고, "부담 없이 그저 생각한 걸 밖으로 표현해보고,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시험해보는 장소"(손 텐)도 많은 삽화가들에게 사랑받는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따뜻한 스토리, 아름다운 색감을 담고 있는 수많은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문화·4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토키행성 은하늬대-어떻게 토끼 행성을 찾았는지? 굶주린 늬대가 나타나 토끼들을 구워 먹을까봐 두려워하는 토끼들의 이야기. 늬대의 시퍼런 발톱을 보고 토끼는 떨며 달망 달망 맛있는 당근을 준다. 그러면 서 토끼버거나 스테이크가 될지 몰라 무서워 은하늬대에게 질해주고 다시 돌려보낸다. 토끼에게 감동받은 은하늬대는 별을 떠나 토끼들의 낭만을 소문내는 이야기. <사계절출판사·1만5500원>

▲나랑 놀 사람=어릴적 엄마의 옛날놀이 실려 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던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시절만의 순

수한 감성이 가득 담겨 있다. 소나기처럼 찾아와 '그'에게 묻는 '지은'의 일상은 사랑과 풋풋한 추억으로 물들여 있다.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삽화들이 함께 실려 있다. <보랏빛소어린이·1만5000원>

▲밤을 먹지 않으면 뇌가 피곤해진다?>양쪽 눈이 세상을 서로 다르게 본다? 피자 냄새로도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뇌과학에 입문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과학을 활용한다. 일상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중간중간 '뇌 용어 사전', '뉴런 연쇄반응 놀이' 및 '3분미션 반응 능력 테스트' 등 뇌과학 미션이 준비돼 있어 흥미롭다. <푸른숲주니어·1만3800원>

한사람의 보험비의  
전국민의 경제부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